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0호 【루계 제24948호】 주체104(2015)년 6월 19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 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창건자, 건설자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백승에로 향도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당이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을 맞이하고있다.

《ㅌ.ㄷ》의 억센 뿌리에서 자라나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수놓아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심으로써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지난 20여년간 우리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대미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지켜내고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은 근본요인은 우리 당이 강유력하고 그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었기때문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정치적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뜻깊은 6월 19일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었다. 해마다 이날을 당창건기념일처럼 전통적인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당과 인민이 있기에 500년, 5,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땅우에는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가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당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수령이시다.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최고정치조직이며 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다. 당이 강할 때 인민대중도 강하며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면 당사업뿐아니라 나라의 전반사업이 다 잘 되여나갈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신조였다. 절세의 위인의 이 신념은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당을 약화시키고 그 령도적기능을 마비시킬 때에도, 류례없는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년대에도 끄떡없었으며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최전성기를 펼치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넓은 진군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지난 세기 60년대이후 우리 당이 헤쳐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넘친 승리의 길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고 주체의 부강조국건설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거대한 업적과 높은 령도적권위도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철석의 의지의 발현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성스러운 력사이다.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의 확립은 혁명적당의 강한 단결력과 조직력, 불패의 전투력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일찌기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의 사상건설과 조직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당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따라 한결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일신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는 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였기에 우리 당은 명실공히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정치사상적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되였고 우리 혁명은 수령의 의도대로 곧바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세계 혁명적당건설력사에는 조선로동당과 같이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철저히 서고 장구한 기간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해온 당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은 억척불변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이끄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고 우리 당의 위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이며 우리 당의 활동방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식 혁명방식이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그 어떤 모진 시련과 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더욱 굳세여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발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 보호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사는 우리 당이 자기의 숭고한 본분과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이끌어주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인민의 어버이의 대해같은 사랑은 우리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에도 뜨겁게 어려있고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분야에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각계층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빛내여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안정향상시키도록 하시였으며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도록 이끄시였다. 최악의 시련이 닥쳐온 시기에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인민의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게 된것은 위대한 어머니당만이 펼칠수 있는 화폭이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운명의 보호자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들의 삶의 권리와 리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보장하는 가장 위력하고 숭고한 애민정치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은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려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이 있어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을 친근하고 은혜로운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있으며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용약 떨쳐나서고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대중의 허물수 없는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고 우리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는 우리 당을 높은 령도예술을 지닌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 력사이다.

조직과 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적수완과 활동방식을 지닌 당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정치적향도자로서 위용떨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집권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의 령도예술건설을 당건설의 독자적인 분야로 정립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 단위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체계를 세우도록 하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당에는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며 중심고리를 찾아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것과 같은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이 확립될수 있었으며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과 선군시대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과 창조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장구한 나날은 류례없는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야 하고 방대하고 어려운 력사적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했던 준엄하고도 격동적인 년대기이다. 우리 당을 비상한 조직전개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결심하면 반드시 빛나는 현실을 안아오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치게 되였다. 애국애족의 리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결심과 실천이 일치한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을 령도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한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여 당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하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혁명적당의 조직건설과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향도해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신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조선로동당과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이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인민중시정치를 비롯한 정치방식들이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준엄하고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만을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조국강산이 천지개벽하고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격동적인 시대이다. 조선로동당의 세련된 령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래일을 확신하고있으며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갈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불패성을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며 길이 전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억년재보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당조직관념과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신념의 결정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들을 즉시에 받아물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보고하는 혁명적인 규률과 사업기풍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오늘 천만군민의 정신적기둥이고 운명이며 미래인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하고 비렬한 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의 관점과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최상최대의 행운과 영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리상도 결심도 보폭도 하나가 되며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혁명전우가 되여야 한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생활향상에 돌려 오직 우리 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에 멸사복무하여야 한다. 청년선구자들의 미풍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 인민의 리상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당은 거창한 설계도를 련이어 펼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있다. 당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집행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의 피끓는 충정과 사생결단의 투쟁정신, 일본새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당정책관철의 본보기가 되며 평양시가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 일군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하며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수령의 당으로 강위력하고 숭고한 애국애민으로 빛을 뿌리며 백전백승으로 존엄높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가까와오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성장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희망찬 미래를 꽃피워나가는 우리 인민모두의 신성한 도덕의리이며 본분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위대한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당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혁명적대경사의 날인 6월 19일을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억년 드놀지 않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고 우리 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태양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국땅우에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끝없이 빛내여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폭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청사가 형상된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모형과 《경축 51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영웅, 접견자, 공로자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곽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책임일군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뻬루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뻬루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에서 18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세이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빅토리아

세이쉘공화국 대통령

제임스 알릭스 미쉘각하

나는 세이쉘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18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탄자니아련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아브둘라하만 아미리 심보 주조탄자니아련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과 탄자니아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5일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네팔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 피. 마이날리가, 부위원장들로 네팔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마니크 랄 쉬레스타, 네팔주체연구소 부소장 닐 비르씽 칸사카르가, 서기장으로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가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채택되였다.

2015년 8월 15일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70돐, 10월 10일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창건된지 70돐이 되는 날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의의깊은 이 력사적인 계기들은 성대히 경축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함께 이날들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네팔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네팔전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따라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일각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사회주의사상교양의 불멸의 대강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보급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승의 기치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는 지난 20년간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보급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그들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사상공세를 짓부시고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굳건히 고수, 발전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원칙, 방법 등에 대하여 완벽하게 밝힌 불멸의 총서인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의 필독문헌으로, 활동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산하당조직들에 로작을 전달침투하고 깊이 연구학습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된 당대회참가자들에게 로작원문을 배포하였다.

벌가리아공산당(맑스주의자) 중앙위원회(당시)는 당지도부성원들과 출판보도기관 인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회의에서 당원들과 광범한 대중속에 로작을 널리 출판보급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은 담화를 발표하여 로작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격찬하였다.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길에 나서고있던 때에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민들에게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고 하면서 세계최초의 사회주의사상교양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실천가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우루과이공산당 국제비서는 김정일동지께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사상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시여 군대와 인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신것은 조선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백승만을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담보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꾸바, 몽골, 로므니아, 스위스, 베네수엘라, 메히꼬, 뻬루, 탄자니아,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등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출판보도기관들이 사상사업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을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하였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로작발행식에서 김정일동지의 로작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져있다고 하면서 로작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나이제리아 에누구출판사는 로작단행본의 머리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식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요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상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고있는데 있다.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출판사 편집부는 김정일각하의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출판하는것을 특전으로 여긴다.

한편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은 《김정일동지 사상사업을 앞세울것을 강조》,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밝혀준 불멸의 총서》 등 제목을 달고 로작의 전문 또는 요지를 전하였으며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해설하는 글들을 편집하였다.

인디아신문 《싸취 빌끌 싸취》는 김정일각하의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귀중한 지침이며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위대한 고무적기치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사상사업방도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조선인민이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순결성이 보장되고 무궁무진한 위력을 지닌 백승의 전투부대로 자랑떨치게 한 원천이였다고 썼다.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불레찐은 김정일각하의 령도방식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의 위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것이라고 하면서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년대기들은 곧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론의 구현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연구보급사업이 로씨야련방공산당, 방글라데슈인민련맹, 기네통일진보당,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민주꽁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 뻬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를 비롯한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조직들에서 토론회, 강연회, 해설모임, 독보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벌어졌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각하는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의 로작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당들이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불멸의 교과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인류는 자기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사회주의위업은 새로운 출발을 개시하였다,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현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의 대가이시라고 격찬하였다.

또한 혁명적사상공세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고 그들은 확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사상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사회주의사상사업에 관한 리론이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가 있기에 사회주의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힘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쉰한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모신 6월 19일은 10월 10일과 더불어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대경사의 날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주체의 당건설과 혁명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과 특기할 사변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력사의 날과 잇닿아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뜻깊은 6월 19일을 당창건기념일처럼 전통적인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이 땅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력사가 500년, 5 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흐르게 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됩니다.

동지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성스러운 당건설력사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시종일관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당사업에 남아있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당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1960년대와 70년대의 투쟁에 이어 년대와 년대를 넘어 새 세기에도 우리 당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는 몇백, 몇천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습니다.

일심으로 뭉친 당의 자랑찬 모습에도,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우리 당의 백승의 위용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어리여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세계가 공인하는 높은 권위도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사는 우리 당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혁명적당건설의 만년토대가 다져진 영광스러운 력사인것으로 하여 더욱더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언제나 우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여오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이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향도적력량으로, 선군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강령으로부터 조직건설과 사상건설, 령도예술건설의 구체적인 과업들과 령도의 계승문제를 확고히 보장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재보이며 이 불멸의 유산을 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의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신것입니다.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벌써 수령중심의 당건설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온갖 원쑤들의 반당적,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전당**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총적목표로 제시해주신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키고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뚜렷한 길을 명시한 특기할 사변이였습니다.

전당**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전변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당의 기초를 축성하는 중대한 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도 영광에 넘친 우리 당력사를 회고하시면서 한 나라의 당을 수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통일단결을 이룩하여놓은것은 **김정일**동지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일찌기 주체의 당건설대강을 밝혀주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여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것을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전진하는 당,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건설하신 어머니 우리 당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천만년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을 강한 전투력과 령도력을 지닌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심화될수록 당을 강화하고 온 사회에 대한 령도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지난 세기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차지하는 당의 향도적지위를 거세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킨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집권당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 당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주체의 령도원칙과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모든 사업을 당적, 정치적방법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에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세워주시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심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이 해당 단위 정치적참모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였으며 당안에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참신하고 생기발랄한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되였습니다.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에서 70일전투속도와 같은 시대속도가 끊임없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기고 날바다도 단숨에 메우는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창조자로 존엄떨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대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을수 있은것은 온 사회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주체의 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입니다.

선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간직하시고 구현하여오신 드팀없는 혁명신조였고 정치리념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변천된 환경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과 로선을 구현하시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당의 혁명령도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을 주체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시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인민군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정치사업방법과 군정배합의 산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으며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사업기풍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실천속에서 당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이 비상히 강화되고 당의 전투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나라의 정치사상진지가 철벽으로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불패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우리 조국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과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는 기적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발전력사와 그 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풍부한 투쟁경험은 우리 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백과전서적인 교본으로, 영원한 재보로 오늘도 끝없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적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시대 당건설의 거장으로, 희세의 정치원로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당건설에 대한 령도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100% 계승하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오직 장군님의 유훈대로 진행해나가는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시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키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인 당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고계십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와 제8차 사상일군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당세포강화를 위한 강령적지침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신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령도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퍼지고있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진정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 우리 당에 드리는 천만군민의 뜨거운 격정과 감사의 메아리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억년 드놀지 않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길에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도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도 있다는것은 주체의 당건설사가 가르쳐주는 철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건설과 당활동, 국가건설과 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군님식대로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장군님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유산인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며 당과 대중의 혈연적뉴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5대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옥같은 충정과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지닌 수령의 참된 전사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신념의 강자, 반제계급투사로, 참다운 도덕의 리의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청년동맹조직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준비시키며 새 세대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억세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정다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현해나가시는 혁명적인 투쟁방식, 창조본때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조직들은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와 세포지구 축산기지,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당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며 당의 위업,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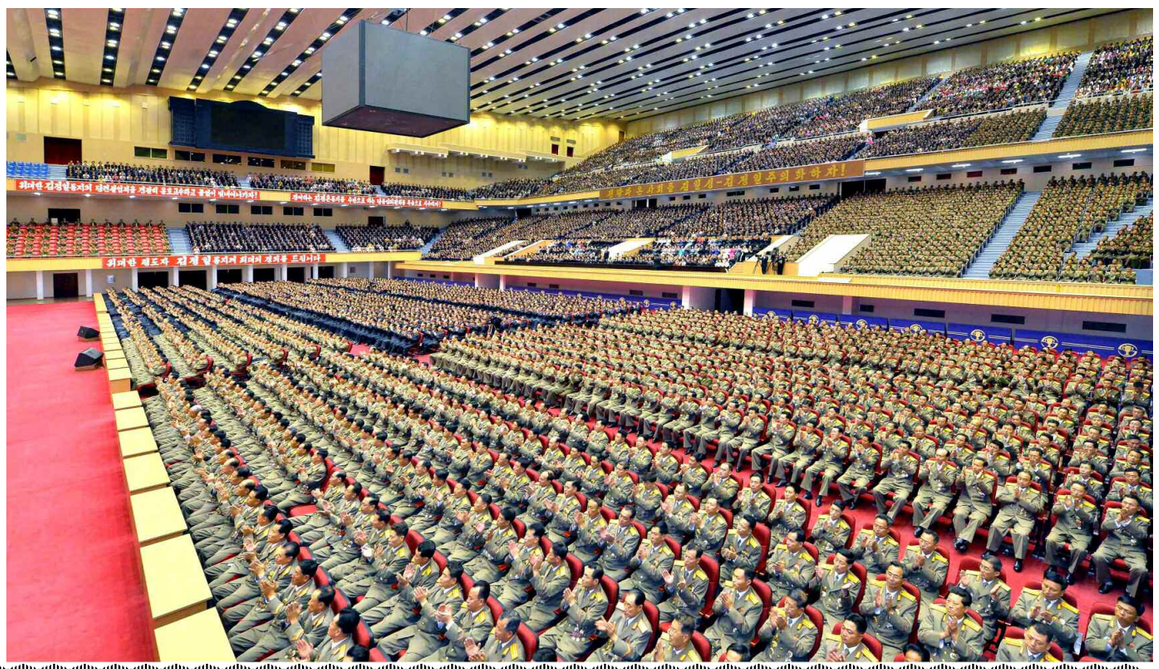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자강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자강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리!》가 자성림산사업소와 자성림산사업소 건설직장, 랑림림산사업소 신원작업소, 고풍림산사업소, 강계갱목생산사업소, 양계갱목생산사업소에 정중히 모셔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47(1958)년 8월 자성림산사업소(당시 만포제재공장)를 찾으시고 목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며 기대관리를 잘하여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또한 험한 산판에서 일하는 림산로동계급에게 륜전기재들과 설비들을 보내주시고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통나무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몸소 랑림땅을 찾으시여 랑림림산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북변의 험산준령을 넘으시여도를 여러차례나 찾아주시며 생산적앙양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고풍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강계, 양계갱목생산사업소의 종업원들도 사업소구내에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가슴뜨겁게 전하는 모자이크벽화를 모시였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43호 주체104(2015)년 6월 16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평양면옥

2중3대혁명붉은기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일용화학공학부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동문국수집
문덕수산사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수지마대직장
봉화화학공장 증기직장
재령군 북지협동농장 제1작업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다시마모직장
금화광산 운수중대
희천은하피복공장
베개봉호텔
청진철도공장 프레스직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동력직장
경흥관

3대혁명붉은기

수도려객운수국 뻐스수리공장 가공직장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제관직장
성천군 대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평성석탄공업대학 탄광경영학부
재령려관
승호군 금옥공예전문협동농장 제2작업반
철원군 상하협동농장 제2작업반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관공장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 환경과학부
단천시 신동협동농장 제1작업반
정평군 동천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영광군 관수협동농장 제4작업반
신흥산려관
량강공업대학 지질학부
강서탄광 혁신갱
남포항 봉사대
대안구역 다미협동농장 제7작업반
라선대외운수사업소
라진수산사업소 가공1작업반
회령철도분국 온성전철대 삼봉전철중대
광복지구상업중심
평양화학건재공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44호 주체104(2015)년 6월 16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을 보인 다음의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연안군 연안소학교
사리원시 길성포고급중학교
함주군 붉은별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에 참가하였다.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중앙위원회에 모신 6월 19일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대경사의 날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시종일관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전당**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실현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전변되였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여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시고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주체의 령도원칙과 령도방법, 령도예술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주체의 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업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건설과 당활동, 경제문화건설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군님식대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장군님의 주체의 당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운명이시며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5대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장약된 수령의 참된 전사, 신념의 강자, 반제계급투사로, 참다운 도덕의리의 인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청년동맹조직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준비시키며 새 세대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역군으로 억세게 키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현해나가시는 혁명적인 투쟁방식, 창조본때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생산에 총동원, 총집중하며 선진적인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을 정상운영하여 생산을 늘이며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으로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함흥,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 광산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과학기술의 위력, 자력갱생의 본때로 생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와 세포지구 축산기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도육아원과 애육원, 간석지건설,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개건공사 등 중요대상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에 적극 떨쳐나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기 지방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도와 시, 군들을 훌륭히 꾸리며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유원지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장식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외국의 벗들이 강조

조선로동당은 진정한 인민의 당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풍부하고 고귀한 투쟁경험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찬양하였다.

웰남공산당대표단 단장인 레 휴 응이아 당중앙리론리사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당으로서 사회주의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과 활동경험, 고귀한 성과들에 대해 보다 깊은 리해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성과와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우리는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본받도록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하는 중요한 거점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이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혁명교양, 애국주의교양을 중시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활동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연구협회대표단 단원 안드레이 싸모힌은 당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며 그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있다,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령도의 특징이 있다고 격찬하였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인 즈. 바뜨바야르 대외관계담당비서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의 요인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데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뚜렷한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이 실시하고있는 정책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본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강위력한 당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정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우리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당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있다.

앞으로도 몽골인민혁명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시) 어머니의 품

기 경 호

한생을 따르며
어머니의 모습으로 눈에 익힌 당이여!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그대를
내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려니
삼가 서슴어지노라

무슨 말로 노래하랴
태양의 광휘로운 빛으로 이 땅에 생을 주고
불덩이같은 정으로
인간사랑의 화원을 만발하게 펼친
한없이 넓고 따뜻한 그 품을

정을 주고 사랑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며
눈비바람 다 가려
천만자식을 감싸안아 보살펴주는 당이여
정녕 그대 품속에서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이 시작된것 아니던가

그 어데서 찾아볼수 있으랴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평범한 녀성들의 발밑에
값진 보석을 깔아주는 그런 사랑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는 그런 헌신을

그 품에 안기면
마음속그늘도 다 가셔지고
허물많던 인생도
새 삶의 아침을 맞이하더라

그대 품이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겐 시련이 아니였다
원쑤들이 불구름을 몰아와도
두려움 모르고
천리길 만리길을 웃으며 헤쳐왔어라

해빛 눈부신 송도원백사장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부르며
아이들이 밝게 웃을 때
그대가 걸어온 그 먼길을 생각하노라
이 땅에 일떠서는 황홀한 새 거리들에서
그대가 펼쳐갈 창창한 미래를 안아보노라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의 삶을
시대의 꽃으로 피워주는 그 품
스무살 꽃나이에 엄마로 사는
《처녀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당이 가꿔가는
인간사랑의 세계가 비껴흐르거니

그 품에 운명을 다 맡겼기에
하늘길 천리 바다길 만리도
전사들은 웃으며 떠나더라
설사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뜨거운 숨결을 부어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는
아, 그대는 영원한 삶을 주는 어머니

진정을 터쳐 노래하노라
내 나라를 이 행성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나라로 꽃피워준 우리 당
온 세상이 우러르는
그대의 모습은 누리에 빛발쳐라

우리 수령님들의 사랑으로 뜨거웁고
우리 원수님의 정으로 열렬한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위대하여라
두번다시 태여난대도 오직 그 품에만 안겨살
조선로동당이여 은혜론 어머니이시여!

(시) 당중앙뜨락

주 광 일

사랑으로 잠 못 드는 불빛도
숭엄히 흐르는 고요도
어버이의 체온인양 인민을 감싸안는 곳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당중앙뜨락

금시라도 몸가까이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
뵈올것만 같아
가슴울렁이며 들어서는
당중앙뜨락

그이의 체취가 력력한
이 뜨락에서
우리 원수님
어버이의 념원을 앞장서 꽃피운
장한 아들딸들을
장군님앞에 내세워주고싶으셨던가

미더운 우리의 과학자들 로동계급들
황금해를 펼쳐가는 어로공들과
용맹한 하늘초병들을 한품에 안아
붉은 당기 날리는 당중앙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원수님

사랑과 믿음의 절정
영광의 절정에 오른 전사들
기쁨의 보고 드리며 울고웃으며
사무치게 그리운 장군님 품에
꿈같이 모두 안겼나니

이처럼 환희로운 순간
이처럼 값높은 표창은 없어라
이보다 뜨거운 상봉
이런 불멸의 화폭이 어디에 또 있으랴

이 뜨락에서
장군님의 숨결을 받아안은 심장은
오직 하나의 박동으로 고동치리
불길만리 폭풍만리 헤쳐간대도
언제나 이 뜨락에
생의 피줄기를 잇고 살리

오, 세기와 세월을 넘어
인민의 마음 달려오는
당중앙뜨락은
영원한 우리 당의 총비서
장군님 계시는 성스런 뜨락
어버이 계시는 고향집뜨락이여라

랑만속에 꽃피는 꿈

강동군 읍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최근 강동군 읍협동농장에서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도 실적을 올리고있다. 고향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 비결에 대하여 관리위원장 비원범동무는 체육열풍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에 대한 희열과 랑만은 인간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긍지와 참된 삶을 빛내이기 위한 인간의 지향을 더욱 높여준다.》

몇해전 농장초급당비서로 임명된 김종수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농장원들의 정신상태나 마을의 면모가 자기가 이 농장에서 사업하였던 근 20년전과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던것이다.

원인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현행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리상과 목표를 높이 세우지 못한데 있었다. 결정적으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희열과 랑만에 넘쳐 살며 일하게 하여야 하였다.

초급당비서는 그 방도를 예술활동과 함께 체육활동에서 찾았다. 매일 아침 독보하기 전에 노래보급을 하고 저녁마다 대중체육활동을 진행하자는 그의 발기를 처음부터 모두가 지지한것은 아니였다.

나이가 많은 일부 농장원들은 농사일도 바쁜데 언제 체육을 할 겨를이 되는가, 더우기 분산작업이 많은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체육경기는 명절이나 기념일에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하지만 초급일군들과 청년들은 하나같이 찬성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체육활동에서도 일군들이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다음날 저녁부터 새로 꾸려진 운동장에서는 체육경기들이 벌어졌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당일군팀과 관리일군팀간의 배구경기는 농장에 대중체육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불씨로 되였다.

시간이 넉넉해야, 조건이 마련되여야 체육을 하는것으로 여기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하루일을 끝낸 농장원들이 분조별로, 작업반별로 건강태권도와 대중률동체조, 탁구, 배구 등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렸다. 어른이고 아이이고 운동장주변에 모두 모여와 손에 땀을 쥐고 응원에 열을 올렸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는 대중체육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삶의 희열과 랑만을 한껏 북돋아주었다. 그들은 저저마다 체육을 하니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도 마음도 한결 젊어지는것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과정에 자라난 집단주의정신을 고향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해나갈 열의는 더욱더 뜨거워졌다.

랑만이 넘쳐나니 지향이 높아진것이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의 새로운 리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켰다.

농장마을의 전경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문화회관이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개건되고 아달산기슭에 일떠선 문화후생시설의 면모도 일신되였다. 작업반건물들이 손색없이 꾸려지고 울타리도 새롭게 건설되였다.

체육활동으로 일터에 랑만이 넘치게 하고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 창조의 숨결로 높뛰게 한 이 농장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매우 인상적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어머니당의 위대성을 선률에 담아 뜨겁게 노래부르며 당을 따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신념의 맹세 굳게 다진다.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신 충 혁 찍음

6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불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월 하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은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약간 높겠으며 강수량은 몇차례의 비가 내릴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내며 아지수를 빨리 확보하고 이삭이 잘 형성되도록 비배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모판관리를 잘하여 튼튼한 모를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 모판단계에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모들을 반드시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정상상태의 모들도 모판관리를 잘하여 5~6잎정도로 크게 키워 튼튼한 모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모내기를 질적으로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마른논에 모를 내는 경우 물을 충분히 주면서 모내기를 하여야 한다. 모판에서 벼영양단지규격이 표준보다 더 크지 않게 모를 뜨며 구뎅이를 판 다음 물을 충분히 주고 그우에 영양단지모를 놓도록 하여야 한다. 영양단지모를 젖은 흙속에 눌러놓고 접시모양으로 단지웃면이 논표면보다 1~2㎝ 우묵하게 들어가도록 묻어주어 바람에 의한 증발량을 줄이고 포기주변에 물이 고이도록 하는것이 좋다.

모를 낸 다음 물을 대지 못하여 논바닥이 굳어진 경우 빨리 쪼아주면서 김도 잡고 증발량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모를 낸 후 모살이가 잘되고 아지를 빨리 치도록 논물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발상태로 키운 모뿌리는 물댄 상태에 적응되지 못하였으므로 모를 낸 후 3~5일동안 물을 논수평면이상으로 올리지 말고 두둑이나 이랑의 골에 물을 대주어 토양에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논벼의 생육상태에 맞게 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논벼의 생육상태, 논에 물을 댄 상태, 모낸 시기, 품종, 비료확보량 등을 고려하여 조절비료주는 시기와 량을 바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내기를 5월에 일찍 하였지만 물을 대지 못하였거나 생육이 억제된 논에서는 조절비료를 6월 20일경부터 앞당겨 주며 정상인 논에서는 6월 25일-30일사이에 주도록 하여야 한다.

생육후반기에 뇨소비료와 함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400배액, 다원소광물질비료 500배액 등을 혼합하여 잎에 분무하여야 한다.

올해 심한 가물이 지속되고 마른논써레치기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김이 많이 나올수 있으므로 살초제치기와 손김매기를 비롯한 김잡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김매기와 후치질, 이삭비료주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김매기와 후치질을 10~15일간격으로 4회정도 진행하며 잎수가 8잎이상인 강냉이밭에서는 북을 높이 주면서 후치질을 하여야 한다.

이삭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비료를 줄 때 반드시 포기사이를 파고 묻어주어 비료가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밀, 보리농사에 힘을 넣어야 한다. 밀, 보리수확시기를 바로 정하고 수확과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며 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밀, 보리수확을 제때에 진행하고 낟알털기를 하여 잘 말리우도록 하여야 한다. 논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들은 뒤그루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수확하는것과 함께 낟알털기를 한 후 제때에 말리우도록 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평지대에서 수확준비를 잘하고 감자수확을 적기에 하여야 한다. 감자밭 3회김매기와 북주기를 빨리 끝내고 잎덧비료주기를 잘하며 적기에 감자를 수확하여야 한다. 고지대에서는 애벌김매기를 빨리 끝내고 2회김매기와 북주기를 잘하며 감자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도랑을 잘 째고 역병예방을 위한 농약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콩농사에서는 원그루콩밭김매기와 후치질, 뒤그루콩심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원그루콩포전들에서 김매기와 후치질을 잘하여야 한다. 앞그루작물을 수확하는 차제로 토양관리를 끝내고 뒤그루콩심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출발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는 리수용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전송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황성학교베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태권도대표단이 떠나갔다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최홍희 전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의 사망 13돐 추모행사에 참가하였던 롱와이맹 국제태권도련맹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태권도대표단이 18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이 전송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김룡권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2015년 국내장애자의 날 련환모임 진행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2015년 국내장애자의 날 련환모임이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강하국보건상,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들, 가족들, 시내 근로자들과 주조 유럽동맹협조대표부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체육유희활동이 있었다.

장애자들과 외국인들, 해외동포들이 진행한 롱인태권도, 밀차타고 장애물 돌아오기, 눈싸매고 장애물 돌아오기, 장애자어린이들의 놀이감따기들은 모임분위기를 흥성이게 하였다.

이어 장애자예술소조원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출연한 공연이 있었다.

혼성중창 《조국찬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피아노독주 《내 심장의 목소리》, 무용 《3인무》, 손풍금5중주 《통일무지개》, 혼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불타는 소원》, 노래와 춤 《행복의 래일》, 가야금독주 《평양날파람》, 교예 《륜돌리기》, 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 종장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의 장애자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련환모임은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장애자보호정책속에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장애자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실천활동을 통한 교양사업으로

천마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광부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결부시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는 사업, 교양마당에 대한 포장 등 사상교양거점들을 꾸리는 실천활동이 그대로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계기가 되게 하고있다.

얼마전 정성기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구체적인 계획밑에 당원들과 광부들속에 사상교양거점들을 꾸리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초급당일군들은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 광부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에 의하여 광산안의 사상교양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강 성 희

민족운명개척의 위대한 향도적력량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아로새겨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붉은 기발이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1년전 당중앙위원회청사로 조용히 들어서시며 위대한 장군님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였던 붉은 당기.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밤을 꼬박 밝히시고 사색의 걸음을 옮기시며 하신 말씀 오늘도 귀전에 들려온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

그때부터였다.

51년전의 6월 19일이 있어 우리 당은 민족운명개척의 강위력한 전위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꺼질줄 모르는 불빛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해올수 있었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는 조선로동당의 모습을 통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 땅에 머지않아 밝아올 자주통일의 새아침을 확신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고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백승만을 떨치는 조선로동당을 희망의 등대로 열렬히 격찬하면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는 당활동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을 철두철미 김일성주석님의 당으로,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이북사회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하나의 산 유기체로 만드시였다. 이것은 그분께서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가장 큰 공적중의 하나이다.》라고 경모의 마음을 터놓았다.

남녘의 각계 인사들이 모인 어느 한 토론회장에서는 이런 감동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한 토론자는 《김일성주석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주체적립장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창건자의 존함으로 빛날수 있은것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당의 위업이 꿋꿋이 이어졌기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토로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승리의 력사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위인들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백전백승을 떨쳐온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력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이다.》,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이 있고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이들의 격정의 웨침에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강성국가건설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열렬한 칭송의 정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것은 우리 겨레에게 백두의 천출명장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었다. 외세의 침략책동에 의해 열백번도 전쟁이 터졌을 이 땅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북남관계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화해와 단합의 시대, 6.15통일시대가 펼쳐져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환희와 신심을 북돋아준것은 우리 당의 위력한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남조선의 력사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한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그 어떤 유혹이나 강권행위에도 끄떡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 만능의 보검,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받드는것을 민족성원의 응당한 도리로 여기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을 따르는것이 나라가 통일되고 민족이 강성번영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진리로 간직하고있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삶과 행복의 보호자,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안겨살 참다운 품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터쳤다.

《이북민중은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고 부른다. 조선로동당이 사회성원들의 정치적생명과 삶의 보호자이고 요람이기때문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일찌기 조선로동당을 민중을 위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으며 당이 민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시였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고 민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당은 이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반역통치배들의 악정으로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혀온 남조선인민들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너무도 놀라웁고 희한한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부산의 한 인사는 동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북민중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그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부르는 비결에 대해 북을 방문하고 알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정책작성에서 민중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며 민중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있다. 그러니 이북민중이 어찌 그 품을 어머니품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겠는가.》라고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그 이름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이처럼 남녘겨레의 심장속에 찬란한 불빛, 희망의 등대로 깊이 간직되여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인의 한생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칭송의 목소리는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제주도의 한 통일운동단체 책임자는 《조선로동당의 높이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공적의 높이이다.》라고 웨치면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당안에 전일적인 령도체계와 독특한 정치방식을 확립한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의 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라고 가슴속진정을 터놓았다.

그렇다.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온 겨레의 심장속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수령복, 령도자복을 누리는 가장 긍지높은 민족이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으며 우리 당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며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는 끊임없이 이어질것이며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도 확정적이라는것을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하여 신념으로 새기고있다. 그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하고있지만 북은 동요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같은 세련되고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된 당이 있기에 북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시련이 가로막든 필승불패할것이다.》, 《북의 조선로동당이 지도리념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선군정치는 남북삼천리에 자주통일의 새봄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라고 자신들의 확신을 표명하고있다.

남녘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안고 우리 당의 애국애족의 정치, 선군정치를 받들어 조국통일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장윤남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이 강조

자주통일의 불멸의 대강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김룡권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이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삼천리강토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가슴벅찬 환희로 들끓던 때로부터 15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인한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고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민족사적사변이였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운동을 자주의 궤도를 따라 보다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가 활기를 띠고 진행되여온 겨레가 통일열기로 들끓었다. 진정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함께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자주통일의 대강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역적패당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오늘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다. 해마다 미국과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며 대결국면을 조성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은 온갖 반통일책동들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고 끈질기여도 자주통일로 향하는 민족의 거세찬 흐름은 막을수도 돌려세울수도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뜻과 념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온 민족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만을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도,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다.

백두산대국의 천출명장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우에 통일강국은 반드시 일떠설것이다.

우리 재일동포들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16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6.15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발표된 공화국정부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통일의지를 높이 받들어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또 하나의 획기적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조국통일을 한결같이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안겨주고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성스러운 조국통일성전에로 뜨겁게 부르는 공화국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열렬히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이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을 가장 현명하게 령도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자애로운 태양상을 우러르면서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탁월한 령도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해주시고 6.15통일시대를 열어주신것은 이국땅에서 조국통일만을 갈망해온 우리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환희를 안겨준 대경사였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통일시대의 거세찬 흐름따라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적성과들이 련이어 일어나던 시기인 2007년 10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시여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보다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시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그러나 북남관계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의하여 되돌아설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대와 외세의존, 동족대결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공화국정부성명이 밝힌 5가지 원칙적립장에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호응해나설 때 온 민족이 바라는 자주통일의 대통로, 제2의 6.15통일시대는 열리게 될것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의 존중과 리행은 북남관계의 개선이고 평화와 통일이며 그에 대한 부정은 바로 대결이고 전쟁이다.

남조선당국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기대와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외세추종과 동족대결과 결별하여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과 외세와의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우고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며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공화국은 정부성명에서 온 겨레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뜻깊은 올해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의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고 통일운동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것이다.

우리는 해외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데서 선구적역할을 한층 높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여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전쟁소동과 대결책동을 짓부셔나갈것이다.

총련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민단, 미조직, 일본국적을 불문하고 일제식민지통치와 민족분렬의 고통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이 동포사회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주적통일을 성취하는데 함께 합세해나서도록 모든 힘을 다할것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조국통일대강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적필승의 선군령도가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안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영예로운 사명과 애국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념행사 진행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과 심양시지부 일군들, 재중조선공민들 그리고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총령사와 령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념보고회가 있었다.

보고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온 겨레와 전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키며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통일운동을 민족자주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고 격찬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민족의 앞길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지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민족의 통일의지가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말하였다.

그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견결히 고수리행하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시랑송 및 노래경연이 있었다.

경연무대에는 합창 《통일 6.15》, 시 《우리 서로 만나자》,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자》, 혼성2중창 《통일무지개》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미본부 성명 발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미본부가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5년전 바로 이날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환희로 들끓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감격과 기쁨은 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라지고말았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이 탄압당하고 애국인사들이 감옥에 갇히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군사적긴장이 조성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보수《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묵살시키고 《천안》호침몰사건을 비롯한 대결모략사건들을 조작하며 공화국을 압살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공화국은 조국을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펼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공화국의 핵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방패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범민련 재미본부는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

우리의 조국은 하나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성명은 끝으로 6.15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지적하였다.

끼르기즈스딴고통련 기념행사 진행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고통련이 14일 비슈께크에 있는 조선쎈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시는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행사장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박경호 끼르기즈스딴고통련 위원장을 비롯한 고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박경호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말하였다. 6.15통일시대에 북남사이의 여러 분야에서 회담이 진행되고 각계층이 서로 오가며 통일대축전을 열고 민족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하였다고 피력하였다. 지나온 나날들은 북남관계는 북과 남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면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넓은 길이 열리지만 그것을 부정하면 불신과 대결,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고 밝혔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는 길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고 오늘의 첨예한 난국을 타개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동포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생화학전책동의 하수인, 공범자

최근 미국이 《공포의 백색가루》로 악명높은 탄저균을 남조선에 극비밀리에 끌어들인 사건을 계기로 상전의 생화학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해온 남조선당국의 범죄적망동이 여론화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들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반입한 상전의 행위를 비호하며 그 무슨 《북의 탄저균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니 뭐니 하는 뻔뻔스러운 망발을 줴친것은 미국과 함께 북침을 노린 생화학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는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술책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력사와 현실은 우리 민족을 생화학전의 대참변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공모결탁해온 그들의 반인륜적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함께 생화학무기개발을 다그쳐왔다. 미국에 있어서 새로운 세균무기의 생체실험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장으로서는 남조선보다 적합한 곳이 없다. 미국이 세균무기연구소를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설치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북침야망에 사로잡힌 남조선집권세력은 생화학무기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줌으로써 생화학무기기술과 재료를 획득할 흉심을 품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람의 장기와 태아는 물론 산 사람까지 세균무기실험용으로 팔아넘겼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만도 1만 2 000여개의 태아와 6만여개에 달하는 사람의 콩팥을 미국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의 제네랄연구소는 1970년이래 해마다 남조선으로부터 4 000개이상의 사람의 콩팥을 사들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그 대가로 남조선통치배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 731부대에 의해 개발되고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에 의해 대대적으로 사용된 콜레라, 천연두, 페스트, 류행성출혈열, 발진티브스 등을 발생시키는 20여종의 각종 세균 및 비루스배양기술을 비롯하여 세균무기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료들을 미국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넘겨받았다.

미국의 뒤받침밑에 남조선통치배들은 생화학무기의 연구와 생산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남조선당국의 생화학무기개발책동은 전두환역도의 집권시기에 더욱 강화되였다. 미국이 월남전쟁에서 사용한 생화학무기의 효률성을 직접 목격한 역도는 1981년 6월 청와대에서 극비모임을 열고 《〈정권〉의 운명을 생화학무기개발에 걸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느니,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화학전이 전쟁승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것이라느니 하는 매우 위험한 폭언을 늘어놓았다.

전두환역도는 생화학무기개발조를 뻔질나게 미국에 보내여 상전의 경험을 터득하게 하였다. 한편 세균무기연구소에서 세균, 비루스의 생체실험을 위한 여러가지 곤충류, 진드기류, 설치류들을 대대적으로 기르도록 하는 한편 미국방성산하의 생화학무기연구소들과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1980년대 중반기에는 세균과 비루스의 생체실험에 성공하였으며 화학무기용 독해물생산을 공업화단계에 진입시켰다. 남조선언론들이 오래전에 《생화학무기개발과 저장은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폭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생화학무기를 북침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실전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부터 시작된 생화학전훈련은 해마다 강화되여왔으며 각종 북침전쟁연습에는 례외없이 생화학전훈련이 동반되고있다. 1988년부터 륙, 해, 공군부대들에 화생방부대학교를 내온 호전광들은 각 군단, 사단, 련대들에 생화학공격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생화학전쟁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화생방방호사령부까지 내왔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호전광들의 생화학무기공격기도는 현 《정권》의 등장이후에도 로골화되고있다. 호전광들이 2004년에 미국본토로 철수하였던 미륙군 23화학대대를 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은 생화학전쟁의 불집을 기어코 터뜨리려는 범죄적계책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해칠수만 있다면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는 남조선호전광들이야말로 추악한 매국반역의 무리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고있는 생화학전쟁책동은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북침망상에 사로잡혀 감히 생화학전을 기도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는 오직 가차없는 징벌과 비참한 죽음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세균부대 추방하라, 미군을 쓸어버리자

남조선단체가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14일 서울 룡산에서 미국의 세균무기실험과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자주평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반입하고 보툴리누스균실험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의 사태에 대해 미국집권자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녀중학생을 죽인 미군을 무죄로 판결한것처럼 탄저균반입사건을 그냥 지나치는것은 남조선국민을 너무나 무시하는것이라고 항의하였다.

미국이 탄저균반입사건과 같은 범죄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였다.

지금 이 시각도 룡산미군기지내에 《65업무대》로 불리우는 미륙군 65의료려단이 주둔해있으면서 세균실험을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서울한복판에서 세균실험이 감행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모르고있은듯이 변명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남조선국민만이 고스란히 입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쟁과 대결을 강요하는 세력과 맞서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전지역에서 반미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국민대장정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하였다.

1 000여명의 시위자들은 행진도중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에게 항의문을 들이대기 위해 미군기지 정문으로 향하였다.

경찰이 앞을 가로막으며 탄압하는 속에서도 시위자들은 미군사령관이 항의문을 받아가라고 웨치며 투쟁을 계속하였다.

미제침략군측이 항의문접수를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취하자 격분한 시위자들은 《세균무기 추방하라!》, 《세균부대 추방하라!》, 《미군은 철수하라!》, 《미군을 쓸어버리자!》고 웨치면서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반로동정책에 항의하여 롱성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민주로총 핵심성원들이 로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하려는 괴뢰정부에 항의하여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롱성에 돌입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정부》가 로조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노린 조치와 비정규직확대를 불러오는 로동시장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반민중적인 계획을 끝끝내 강행할 경우 민주로총은 총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 공공운수로조 위원장 강규혁을 비롯한 민주로총산하 산별로조 위원장,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30여명이 무기한 롱성에 들어갔다.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동족대결책동중지와 미군철수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반미, 반《정부》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남과 북, 해외가 6.15공동선언발표 15돐과 8.15해방 70돐을 맞으며 민족공동행사들을 가지기로 하였지만 현 《정권》이 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족공동행사는 비록 파탄되였지만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고 남북관계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탄저균과 그보다 독성이 10만배나 강한 보툴리누스균까지 들여다 비밀리에 실험하고 우리 민족과 아무 리해관계도 없는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 희세의 정치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당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날부터 수십년세월 로숙하고 세련된 사회주의집권당으로,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로정에서 진보적인류가 받아안은 진리이다. 혁명적당들의 본보기,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의 상징으로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우리 당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력사의 그 언제, 그 어느 시대에 어느 당이 당의 창건자의 존함과 함께 불리우며 그 이름 빛난적이 있었던가.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의 국제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다. 현대수정주의가 선행한 수령의 업적을 헐뜯으며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을 외곡변질시키고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 당들에 내리먹이며 로동계급의 당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탁월한 령도와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온 세상을 감동시키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세기 말엽에 와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위기와 좌절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 당들은 수십년간 유지하여오던 령도적지위의 상실과 공산당, 로동당들의 해체라는 비극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78(1989)년 10월 26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을 접견해주시였다.

《그란마》 사장의 건강상태며 꾸바의 형편 등을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며 나라가 분렬되고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은것은 바로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 지적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라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때 당은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이 아닌 전인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준엄했던 나날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과연 얼마였던가.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완벽한 철의 론리로 일관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만사람의 공감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집권당건설의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고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환히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발표된 후 두달동안에만도 중국의 《인민일보》,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붕》, 벌가리아신문 《뜨리부나》, 적도기네라지오방송을 비롯한 100여개 나라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오늘날 국제적규모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 강습, 학습회 등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세계 혁명적당들은 우리 장군님을 자기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필독문헌으로, 당건설과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유럽의 한 정당지도자는 《최근년간 우리 당의 력량이 크게 강화된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당활동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적인 당건설사상을 구현한데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자주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라고 하였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다른 나라 혁명적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모범으로 그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는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희세의 정치원로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고결한 도덕의리심, 충정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폭풍사나운 년대기마다에 우리 행성의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당건설업적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여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배금희

선군정치에 매혹되여

주체86(1997)년 9월 어느날 어느 한 나라의 정치인이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당건설경험을 배우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당시 그가 이끄는 당은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석상에서 그는 자기 당의 사업내용과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가르치심을 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 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수도 들어볼수도 없었던 독창적인 사상이였던것이다.

그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것이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성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새 출발을 하자. 위대한 선군정치를 따라배워 우리 당의 진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은 그가 선군정치로 난국을 헤쳐나가시며 력사의 새시대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다진 굳은 맹세였다.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당의 지도리념은 주체사상, 당의 지도방법은 주체의 요구대로!

이것은 베닌혁명당(당시)의 창건자였던 알리 후두와 이 당의 당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굳은 신념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주체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세계 혁명적당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본보기로 건설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자기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우리 장군님께 드리는 《베닌혁명당 명예위원장증서》를 전달하면서 알리 후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모신 리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는 **김정일**각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령도예술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령도하고계신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당이 평양선언에 서명한 정당으로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는 당이라는것이다.》

안철권

세계혁명의 탁월한 지도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월 19일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조선로동당은 그이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다.

이것은 결코 상징적인것이 아니다.

김정일총비서의 사상과 로선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리론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이 날로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백승의 기치로 되고있다.》

따쥐끼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조선로동당을 가장 전투력있는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혁명을 선도해나가는 향도자,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라고 자기의 견정을 토로하였다.

기네해군련합함대 대통령호위함 함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조선로동당 령도사는 뛰여난 정치실력으로 조선민족과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안에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하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을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대가 강한 당,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강위력한 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보다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되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사업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의도, 방식대로만 해나가시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은 성명을 발표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조선로동당을 사회주의기치를 확고히 고수해나가는 백승의 당으로 건설하시여 혁명적당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당건설업적과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세계가 공인하고 칭송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뿐만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영생하고계신다.

또 한분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어제와 오늘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직사상적전일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만 이끄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세계 진보적인류의 뜻깊은 명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몽골, 우간다, 스웨리예에서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정당들도 실현하지 못한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그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향도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사상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서기국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세상에서 가장 강위력한 정치조직으로 건설하시고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건설경험이 아프리카나라 정치조직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보다 강화하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였다.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공적이 그처럼 거대하기에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가 6월 19일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것이다.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스웨리예의 공산당, 에티오피아물공사건설기업소와 베텔병원, 앙골라보건성에서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좌담회가 진행되였다.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6월 19일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이 되는 력사적인 날이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에티오피아물공사건설기업소의 인사들은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신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주체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앙골라보건성 로동처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향도해나가는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걸출한 령도자,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고 칭송하였다.

앙골라의사협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자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력사는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아프리카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커다란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자기의 존엄을 더욱 높이 떨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얼마전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 알렉싼드르 워론쪼브가 스뿌뜨니크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자체가 조선을 핵무력강화에로 떠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조선이 지역의 평화보장을 위해 실속있는 대화를 진행할것을 수없이 제기하였지만 무시당하였다고 하면서 지속되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에는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의 조선문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항시적인 위협속에서 필연적으로 도래한 기정사실이며 이에 책임있는 유관국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조선의 핵무력은 강화될수밖에 없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핵억제력보유의 력사적과정과 우리가 핵무력강화에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응당한 평가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시비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없다느니, 지역의 평화보장에 《위협》으로 된다느니, 포기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어떻게 하나 사태를 역전시켜보자는것이다.

미국의 속심은 딴데 있지 않다. 우리를 《위협세력》으로 몰아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합리화하고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 하지만 그따위 수법은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으며 핵무력강화조치는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병진로선을 따라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적대세력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미국에는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를 놓고 어쩌구저쩌구할 명분도 권리도 없다.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보유와 그 강화조치에 대해 시비중상하는것은 패배자의 맥빠진 넉두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선택과 로선은 천만번 정당하다. 모든 사물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순차가 있기마련이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것도, 병진로선을 제시하고 핵무력강화에로 나가게 된것도 그렇다. 바로 미국이 우리가 이 길로 나가도록 적극 떠밀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 조선전쟁때 우리 인민에게 핵공갈을 가한 미국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는 1970년대에 1 000여개에 달하였다. 남조선은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이며 일방적인 핵위협공갈이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안도 내놓았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안고 여기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소동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였다.

미국은 1990년대에 채택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고의적으로 파기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화나 협상은 물론 그 어떤 국제조약도 미국의 대조선핵위협을 막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핵위협을 핵억제력으로 제압하는것뿐이였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안전과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중대결단을 내리고 합법적으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갖추게 되였다.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였다.

결국 미국이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셈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에 의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지난 세기부터 계속되여온 조미핵대결에서 우리는 승리하였고 미국은 패하였다.

미국은 응당히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대조선정책에서 변화를 가져왔어야 하였다. 허나 미국은 우리를 어째보려는 허황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현 집권세력은 정치, 경제, 군사적힘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 날강도적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그것이 그 누구의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이것은 제재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장기화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게 되였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질적으로, 량적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있다. 만일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물론 경제강국건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지 않는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응당하고도 정정당당한 합법적권리이다. 여기에 그 어떤 시비도 있을수 없다.

미국이 우리가 마련해준 가능한 기회마저 차버린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사실 지난 1월 우리는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을 림시중지하면 우리도 핵시험을 림시중지할수 있다는 용의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의 표시였다. 미국은 이것마저 외면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핵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조선반도정세를 끊임없이 격화시키면서 저들이 추구하는 목적실현에만 몰두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강화의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전쟁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위력한 보검이며 믿음직한 방패이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이것은 변할수 없는 우리의 립장이다.

핵억제력강화만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막으며 세계평화보장에 이바지할수 있는 길이다.

리학남

광물가공공업을 발전시킬것을 호소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가 12일 아프리카동맹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대륙의 광물가공공업을 발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대륙나라들이 광물가공을 더는 다른 나라들에 위탁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대해 밝히고 그는 이로부터 대륙의 무진장한 광물자원을 아프리카땅에서 가공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광물가공공업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을 지켜낼 립장 천명

에짚트의 한 고위관리가 9일 기자회견에서 테로행위로부터 문화유산을 지켜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IS)가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고대유적과 조각상들을 마구 파괴하고 귀중한 문화재들을 밀매하여 자금원천으로 리용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그는 유적들은 에짚트뿐아니라 전인류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가 국내유적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힘껏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 란 에 서 밀수확

ㄱ-51095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